

◎ 노중국, 『백제의 대외 교섭과 교류』 (지식산업사, 2012)

제 2편 초기백제 시기

-<삼국지> 동이전에는 마한, 진한, 변한이 보임. 245년 진한 8국 교섭 창구를 낙랑군에서 대방군으로 옮겨서 중국 군현과 삼한 사이에 전쟁 사실 기록.

-<진서>에는 마한과 진한이 서진에 사신보낸 기록 →마한, 진한, 변한이 3세기 말까지 존재

-<삼국사기> 초기 기록 백제, 신라 기사는 실제로는 마한연맹체와 진한연맹체에 대한 사실

3장. 낙랑·대방군과의 교섭과 교류

1절. 낙랑군과의 관계

-낙랑군: 서기전 108년 한무제가 위만조선 멸망시키고 설치한 한사군 중 하나. ~313년.

-초기백제와 낙랑군의 교섭은 <삼국사기> 백제본기 초기 기록 중 온조왕 대 집중: 실제로는 한강 이북 부족국가들의 낙랑군과의 충돌-교섭에 대한 백제 중심 역사서술

-온조왕 대 낙랑 관련 기사

- 1기: 건국 후 개루왕(128-166)대까지: 건국 초기 낙랑군과의 충돌 회피, 우호
- 2기: 초고왕(166-214)에서 사반왕(234)까지: 백제가 한강 중심 지역연맹체 맹주국으로 성장, 한강 이북으로 영토 확장하면서 낙랑군과 긴장, 군사충돌

2절. 낙랑·대방군과의 관계

1. 공손씨 세력의 대방군 설치와 조위 시기 기리영 전투

-2세기 후반 후한의 정치 문란과 낙랑군의 위기→요동 공손씨 세력의 낙랑군 지배, 대방군 설치

-공손씨 멸망시킨 조위 낙랑군, 대방군 평정(237~239)

-기리영 전투(245년 마한-낙랑·대방군 전쟁): “부종사 오림은 진한 12국 가운데 8국을 분할하여 교섭창구를 낙랑군으로 바꾸도록 하였다”? ==> 주도국은 (1) 목지국 (2) 백제국 (3) 신분고국 설

2. 서진 시기 낙랑군·대방군과의 화호와 갈등

-245년 전투에서 마한은 대방군에 패배, 마한 주도국가 목지국 위상 위축→백제가 목지국 멸망시키고 마한연맹체 맹주국 등극(고이왕)

-마한은 3세기 후반 조위 후속국인 진(晉, 265~)에 빈번히 사신 보냄: 마한주(馬韓主) 이름으로=백제 고이왕: 여전히 부족국가 연맹체

-백제 중심 마한이 서진과 교섭하면서 마한-낙랑·대방군과의 우호 관계로 변화

- 고구려 견제 위해 백제 도움 필요: 대방군 백제 책계왕과 혼인
- 혼인 후 백제는 고구려가 대방 공격시, 대방군 요청대로 원군 보내줌→고구려와 갈등 유발
- 그러나 백제의 성장에 위협 느낀 낙랑군/대방군은 백제 공격, 책계왕 죽임(298년)
- 백제와 낙랑·대방군 관계 악화→313-314년 고구려가 낙랑·대방군 멸망시, 백제 지원X